

# 검찰 “정인이, 16개월 아이가 9.5kg”

공판서 “사망 전날, 어떻게 어린이집 보냈는지”  
“범행 감추려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 바꾼듯”  
“팔 올려야 생기는 상처도... 발로 밟혀 췌장절단”  
“아이 밟아 안 죽는다 생각하는 정상 성인 없어”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입양부모의 열번째 공판이 열린 7일, 정인이 사망 당일 상태가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기아와 흡사한 수준이었다는 검찰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체중은 사망 당

일 16개월 아이가 9.5kg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씨는 맨발을 사용해 가격했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명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정인은 9개월 동안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머리를 뒤로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해 채고개를 숙였다. 재판 도중 장씨는 감정이 폭발하는 듯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

린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마지막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 광주동부소방, 병원관계자 비대면 영상회의 주재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지난달 31일 오전 관서장 주재로 대형화재 취약시설인 병원관계자(병원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면접촉 방식의 행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한 비대면 간담회로 병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및 피난대책 논의를 통한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별 실정에 맞는 피난유도 대책 논의 ▲실제적인 소방훈련 당부 ▲재난 취약대상 수평피난 중요성 강조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건의-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화재 시 일반인은 계단 등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수직 피난’이 가능하지만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은 수직 방향으로 피난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거동불편 환자 개개인을 따로 대피시킬 만큼 병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중소형 병원들도 노인요양시설처럼 ‘수평 피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희기자

## 무안소방, 합동드론공중감시단임야화재순찰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2일 무안을 몰았이 공원에서 드론 공중감시단 순찰과 입산자들에게 임야화재 예방 캠페인을 무안군과 한마음 SKY 무인항공교육원과 함께 실시했다.  
무안소방서는 이번 캠페인에 드론 3대를 활용, 인근 영정산 주변 일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순찰하고 지상에서는 무안군 산불진화대의 도보 순찰, 드론을 이용한 지상과 공중 순찰을 실시하여 입체적인 화재예방활동과 논·밭둑 소각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근 5년간 무안지역은 불철 화재가 가장 많은 32%를 차지하여 사계절 중 28%가 발생하는 겨울철보다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인적 부주의로 6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주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쓰레기 소각, 논·밭둑 소각, 담뱃불, 불씨 방치가 대부분이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청명인 4일과 5일 한식을 중심으로 소방에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긴장 속에 근무하고 있다. 이번 경계근무 기간 중 지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예방활동을 펼쳐 단 한 건의 산불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산자나 농민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완도해경, 군경합동작전 통한 불법선박검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1일 장흥군 노력도에서 군·경 합동작전을 통해 면세유 부정사용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속 모터보트 선장과 선주를 추적하여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9일부터 완도해경 회진파출소에서 주요 취약 항·포구 순찰 중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A호(2.28톤, 여수선적, 모터보트, 250마력 2대)를 수상히 여겨 이를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섰다.  
완도해경은 93여단과 협력하여 CCTV와 TOD(영상장비)를 이용, 장흥군 노력도에서 정박된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과 면세유부정사용 혐의로 검거하였다.  
완도=이민혁기자

## 강진경찰, 내실있는 자치경찰제 시행 의견 나눠

강진경찰서(총경 박승기)는 5일 전남도의회 김용호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을 초청해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마련됐다.  
김용호 도의원은 자치경찰제 추진현황과 준비사항을 청취하고 “자치경찰제가 우리 지역사회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순천시 “코로나19 ‘매우 위중... 밀접·밀집·밀폐 환경 피하라’

시방역당국 “4일 이후 24명 확진, 거리두기 2단계 지켜달라” 촉구



4일 이후 5일까지 80대 여주시민 1명을 포함해 19명이 확진됐고 하루 만에 5명이 추가됐다.  
순천시는 집단감염이 확인되자 4차 대유행의 위기상황으로 보고 5일 낮 12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임채영 순천부시장은 “의료기 판매점·의원 관련 감염이 이어지면서 시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가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 위태로움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타지역 방문과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밀접·밀집·밀폐된 환경을 피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의료기 판매점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지난달 27일부터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 진단감사에서 확진됐다.  
또 다른 1명은 지난달 30일부터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6일 한 병원을 방문해 진단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이들 두 명은 감염원이 확실치 않아서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는 6일까지 2395건의 검체를 채취했고 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자가격리시켰다. 순천시의 총 자가격리자는 772명으로 늘었다.  
앞서 순천시에서는 조곡동의 의원과 인근의 의료기 판매점을 방문한 70~80대 고령층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전남 순천시 조곡동의 한 의원과 의료기판매점발 코로나19 감염자가 연일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7일 순천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

해 지난 4일 이후 모두 24명이 확진됐다. 신규로 확진된 5명은 순천 273번~순천277번(전남 940번~944번)으로 분류돼 순천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들 5명 중 3명은 조곡동 의원과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

